

AUTHOR 김지찬

TITLE 최첨단 기술 사회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논평

IN 한국개혁신학논문집, Vol.4 No.1 (1998)

최첨단 기술 사회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논평

김지찬(총신대)

I. 논문의 논지

구약의 관점에서 “최첨단 기술 사회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조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송 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의 말대로 구약은 이런 정보 중심의 사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 점에서 송 교수는 “구약은 기술 문명 발전 자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으로만 논의를 한정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개인 사회(창 4장)”와 “바벨탑 사건”(창 11장)에 비추어진 기술 문명의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논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송병현 교수는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개인 사회가 인류의 첫 살인자 개인의 후예에 의하여 발전되었기에 그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 문명은 내재적 출발부터(inherently) 나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하나님 이 바벨탑(온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발전의 상징)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심판하셨듯이, 인류의 모든 기술 발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한국교회 안에 지배적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기술 문명에 대한 성경

적 이해가 과연 타당한가? 만약에 타당치 않다면 성경은 과연 기술 문명에 대하여 어떤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는 개인 사회의 문명에 대한 그 동안의 전통적인 학자들의 지나치게 부정적 견해는 그들의 자유롭고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세기 4장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참여시키는 민족들은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선택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 사회의 탁월한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셋 사회를 선택하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 사회의 문명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기술 발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기술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데 사용한 그들의 동기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송 교수는 “구약은 최첨단 기술을 맹목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기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사용하는 자들의 의도/목적을 문제시하고 있다. 즉 최첨단 기술은 가치적으로 중성이거나 긍정적이다. … 다만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기술 발전을 피하지 말고 기술이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송 교수의 위와 같은 논지에 근거하여 비평적 논평을 하고자 한다. 위 논문은 장점이 단점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논평의 성격상, 장점보다는 단점에 비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Ⅱ. 장점

첫째 송 교수의 논문은 초두에 제시한 논문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비교적 설득력있게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부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기술 문명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교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실제로는 세상의 문화에 이미 합세하였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세상 기술을 비판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기술 문명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 신학적 이해를 갖게 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셋째, 정보 사회에 대한 구약적 이해라는 주제가 다소 다루기 힘든 토픽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구약 학계의 논의에 기초적인 초석을 놓은 것은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침단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인터넷 환경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한 선교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II. 단점

첫째, 송 교수의 개인 사회의 문명에 대한 해석은 좋은 시도이나 아직까지는 주석적 근거는 약해 보인다. 송 교수는 “그 동안의 전통적인 학자들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는 자유롭고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송 교수도 이런 견해는 “창세기 4장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를 설명하는데 있다고 보면, 이런 부정적 해석은 신빙성을 지닌다”고 인정한다. 송 교수가 이런 견해를 자유롭고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제기한 근거 역시 “자유롭고 주관적”이라는 래페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송 교수는 전통적인 학자들의 주석적 근거(비록 송 교수가 볼 때 자유롭고 주관적이지만)와 맞먹는 자신의 주석적 근거 없이(어쩌면 이론 주석적 근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해석의 큰 틀만이 다른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참여시키는 민족들은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선택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 사회의 탁월한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셋 사회를 선택하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 사회의 문명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바벨탑 사건 안에는 송 교수가 본 것(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이상의 현대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고 본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건축 같은 엄청난 반역이 가능한 것은 서로 서로 소통이 잘되고 짹이 잘 맞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 특별히 "하나요 … 하나요"라는 쌍이 바벨탑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에 나온다: "온 땅의 구읍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1절).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6절)."

언어도 하나요, 족속도 하나이기에, 인간 공동체의 분위기는 집중적인 의사 소통에 의해 흥분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엄청난 계획으로 나아간다. "자 우리가 벽들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우리 스스로 쌓자." 언어가 하나이므로 생각을 교환할 수가 있고, 마치 스파크가 일 듯이 인간들은 좌충우돌하며 계획을 만들어 낸다. 원래 언어는 인간들에게 창조적 사고의 원천이다. 할로베나 르아벤(הַלְוָבֵן) – "벽들로 돌을 대신하고" – 하케마르 라코메르(הַקְמָר) –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와 같은 유사한 발음이 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인간들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창조적 사고를 해나가는지 보여준다. 르베나(벽들)를 떠올리고 나니 놀랍게도 르아벤(돌)이 생각났으며, 케마르(역청)를 떠올리니 코메르(진흙; 모르타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닌가!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인간들은 여기서 저기로 전너뛰며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공통의 언어는 새로운 실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언어가 하나인데다가, 시날 평지 한 장소에서 인간들이 모인다. 이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힘을 모운다. 하나가 됨(unity)은 힘이며, 몽치자(concentration)가 이들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본다면, 도시

화, 합병, 자동화, 정보화는 단지 오늘 현대의 슬로건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혹시 오늘날 한 언어인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한 장소인 인터넷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언어의 통일성과 정보 관리 센터(장소)의 통일성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인간 구속에 반하는 어떤 거대한 시도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위험성 앞에 우리 모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은 기술에 문외한인 신학도의 어설픈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런지는 모르나, 신학자와 설교자의 과업은 비록 과학과 기술에는 어설프지만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봄은 지나친 낭만주의적 발상일까?

셋째, 송 교수의 논문에 기술 문명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인 “도덕성과 윤리성 강조의 결여”가 어렵다. 송 교수는 “기술 발전의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칠 것인가”의 양자택일에서 두번째 선택은 무모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송 교수는 현대 교회는 기술 발전의 파도를 타야한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문제는 파도를 탈 수 있는 수영 능력이 없으면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의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술 문명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수영 능력은 무엇인가? 이는 송병현 교수가 지적한 대로, 기술을 사용하는자의 윤리성이다. 오늘날 많은 기술 문명은 이를 사용하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인간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 논리로 인해 심각한 윤리 부재 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술 문명의 파도를 타라고 권면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국교회의 이기적 성향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또 다른 논문을 요구하는 일이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단점의 지적은 앞으로 학계의 발전을 위해 송 교수가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뿐이다. 다루기 힘든 주제를 나름대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소화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

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한다. 한국 신학계에 교회를 섬기려는 진지하면서도 능력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고무됨을 느끼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